

전남도, SOC 국비 사상 최다 '도민 행복시대' 날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1조5466억원 확보 총 국비 확보액 18%...15% ↑

전남도는 2022년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국비 1조5466억원을 확보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도 총 국비 확보액의 18.4%의 비중으로, 지난해(1조3365억원)보다 2101억원(15.7%) 증액된 것이다.

우선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사업비 605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 서남권 중심공항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하게 됐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안철도) 잔여사업비 246억원도 포함됐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철도사업은 2400억원이 반영돼 남해안권 철도 중 유일한 비전철노선인 '보성-순천' 구간을 탄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이 완공되는 2025년에는 목포-부산 간 전 구간이 개통돼 현재 6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을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함에 따라 남해안 전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될 전망이다.

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국회의 과정에서 각각 1억 원이 반영돼 조기 터기 발주를 하게 됐다.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의 새 랜드마크로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사업 3600억원, 신안 입해-화원, 여수 화태-백야, 보성 벌교-주암, 화순 동면-주암, 신안 입해-송공, 곡성 석곡C-겸면 등 국도사업에 1911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사업에 19억원을 확보, 국가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통합관사 신축 10억원 등을 확정해 다변화하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전남에서 아시아와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항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공항 건설비 81억원도 확보했다. 앞으로 연내 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혁신공항 공영구역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고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공사를 착공해 사업이 완료되면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하늘 길이 열리게 된다.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20억원, 남해안 명품전망 공간 조성 35억원,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3억원 등이 반영돼 남해안 및 섬진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이 고용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은 계획기간 내 준공하고, 신규사업은 설계 및 보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등 전남도-전문가, 현안 논의

전남도의 미래비전인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전남도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 체계 구축, 폐원전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주요 정책과 협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도청 왕인실에서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기영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미래 전남 발전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미래비전으로 선포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의 구체적 실현 방안인 ' 으뜸전남 미래전략' 8대 추진전략과 69개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한 자문과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책자문위는 ▲전남도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 체계 구축 ▲폐원전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체계 강화 ▲전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시설아동 퇴소 후 현황조사 및 자립지원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으뜸전남 조성 등을 제안했다.

광주 저상버스 운행률 30% 내년 45대 추가 도입

광주 시내버스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저상버스 42대 제작을 주문해 현재 36대가 도입됐다. 전체 시내버스 999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297대(29.7%)로 남은 6대가 내년 1분기까지 추가로 투입되면 30%를 넘는다.

민선 7기 저상버스 운행률 3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광주시는 내년에도 45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저상버스는 계단 대신 경사판 등을 사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올라탈 수 있다.

노선별 저상버스 운행시간표는 광주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B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1 전라남도 일자리 경제·투자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 임원 12명 인선...내년 1월 출범

노사 상생을 끌어갈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이 핵심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동찬 대표이사 등 선임직 임원 9명을 임명했다.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이들 외에 이사장인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사, 감사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병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현 광주경제지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동찬 초대 대표이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토대가 된 독일 '아우토비전 2000' 프로젝트 벤치마킹에 참여했으며 6대 광주 북구의회 의장, 8대 광주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해 이해도와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재단 창립이사회에서는 운영 규정, 사업 계획 등을 심의했다. 재단은 이날 중 법인설립허가, 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무국 구성,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남혁신지원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경영기획·정책연구·상생 일자리 사업 등 3팀, 21명 인력을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나주시민단체,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공공기여 조례 제정 운동 나서

주민 발안 조례 제정 토론회 개발 이익 독점 폐단 근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용도 변경 특혜 문제를 줄곧 비판해온 지역시민단체가 공공기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생겨나는 이익을 부영주택 등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폐단을 끊겠다는 게 시민단체 구상이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와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빛가람

문화공간 프롬에서 '주민발안에 의한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이익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10만여평에 대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의 3에 근거해 대규모 유희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고, 공공기여 조례를 제정하면 제도적으로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와 시민운동본부는 지속해서 나주시에 사회적 논의기구

로서 부영건설 특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기구의 구성·운영을 요구해 왔지만, 나주시는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면서 "이제 주민이 조례 제정에 나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공공기여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나주시의회와 나주시민들과 힘을 합쳐 조례를 제정해 부영골프장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시민사회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지희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대표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법이 내년 1월 13일 발효된다"며 "이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부영골프장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위해 주

민조례 직접발안 주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하면 나주시의 경우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유권자의 70% 1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나주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로 나선 이상만 나주시의회 부영특위위원장은 우선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조례를 발안하면 의회 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의회에서 구성한) 부영특위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익이 우선되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집중 견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예 능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도시 36